

‘태풍에 철수’ 잼버리 대원들 “더위에 적응, 교류 계속 원해”

고사포 해수욕장서 아쉬운 마지막 영의 프로그램 숲 밧줄놀이부터 생존수영까지...고체삼푸 만들기 참가자들 “재밌어” 일색...태풍 복상에 새만금 떠나

“눈에 물 들어간 것 빼면 생존 수영은 재밌었습니다. 처음 (세계 잼버리에) 왔을 때보다 시원해졌고 날씨에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 엘오라(17)양은 햇볕이 내리 쬐는 7일 오전 전북 부안군 고사포해수욕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마친 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이날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 부안은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됐지만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들어선 고사포 해수욕장은 바람까지 선선하게 불어와 야외 활동을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

고사포 해수욕장을 찾은 800여명의 대원들은 밧줄 놀이와 생존수영 등 각종 해양 활동과 친환경 캠핑용품 만들기 등 영의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양은정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영의 활동프로그램 팀장은 “하루에 800명의 대원이 (고사포 해수욕장) 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오전에는 400명이 숲밧줄 놀이를 하고 200명이 생존수영, 200명이 친환경 용품 만들기 한 후 오후에는 로테이션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숲밧줄 놀이는 숲에서 밧줄과 매듭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놀이기구로 청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산림 레포츠 프로그램이다. 이곳에서는 네팔다리, 밧줄 지그재그, 통나무 징검다리, 그물 오르기 등 A존부터 F존까지 여러 코스가 진행된다.

대원들은 나무 꼭대기에서 집라인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며 나무와 나무 사이 설치된 나무다리를 건너기도 한다. 헬멧과 안전장치를 착용한 대원들은 출렁거리는 밧줄 다리에 한발씩 내디디면서 떨어지지 않으려

진지한 모습으로 임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스카우트단의 한 청소년은 밧줄놀이를 마치고 난 후 “낯선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면서 “그늘과 나무가 있고 (고사포 해수욕장이) 시원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영장 입구에는 친환경 캠핑 용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가공된 커피찌꺼기로 직접 빻어 만든 고체 삼푸와 고체 치약은 실제로 잼버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나빌(17)군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삼푸를 만들고 있다. 늦게 도착해서 해양 활동을 못 해서 아쉽지만 (친환경 캠핑용품 만들기 체험)은 좋다. 오늘 삼푸가 마침 떨어져서 만들기를 잘했다”고 밝혔다.

고사포 해수욕장에서는 생존 수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구명조끼를 입은 대원들은 강사의 인솔 하에 생존 수영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직접 바다 물속에 들어가 물놀이가 위기 상황에 필요한 동작을 익히고 수영을 직접 해보기도 했다. 교육을 마친 후 쉬는 시간에는 바다에서 서로 물을 튀기며 공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대원들도 보

였다.

한편 대원들은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과의 교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엘오라양은 “앞으로 많은 대원들과 스카프와 배지를 교환해보고 싶다. 한국 대표단과는 이미 배지 교환을 했다”면서 “배지는 추억으로 간직할 예정이며 다른 스카우트단의 액세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다”고 들뜬 마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엘레노라(16)양은 “스카우트 대원으로 참여해서 다른 나라의 스카우트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좋다”면서 “(영지를) 돌아다니는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재밌다”고 강조했다.

초기보다 잼버리 시설 내 더위대책과 시설이 안정화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사포 해양 활동 IST(국제운영요원)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요하나(24)씨는 “조반에는 잼버리 내 물이 부족했었다”면서 “처음부터 이온 음료가 물이 더 많았거나, 더위를 식힐 방법이나 그들이 많았으면 좋았

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원들은 이날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새만금 영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스카우트 연맹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 공지에서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에도 캠핑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호스트(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세계잼버리 관련 태풍대처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폭염 전쟁’ 잼버리서 간호사들 사투...“컨트롤타워 부재”



전북 부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일주일째 폭염과의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북간호사회 소속 회원 등 의료진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잼버리병원과 5개 클리닉센터 모두 운영이 정상화되어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간협은 지난 1일 현장에 현직 간호사와 간

호대학생 4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 간협 중앙간호봉사단 소속 20명을 파견했다.

중앙간호봉사단원들은 대회 초기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남원의료원, 예수병원 소속 간호사와 순천 정암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준비되지 않은 5개 클리닉센터 내 진료 동선을 만드느라 동분서주했다.

이후 잼버리병원을 비롯해 5개 클리닉센터

클리닉센터에 진료동선 구축

에는 열사병, 발레몰림, 찰과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각 센터에 대거 몰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후 전북간호사회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이 참여하면서 전정터를 방불케 하던 현장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전북간호사회의 경우 소속 회원과 효사랑요양병원 간호사 등이 현장에 합류했다.

중앙간호봉사단의 한 단원은 “의료진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현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물품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들이 인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등 컨트롤타워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간은영 중앙간호봉사단 단장은 “클리닉센터별로 단원들이 거의 중심이 돼 활동하고 있다”면서 “단원들 모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슬비기자

잼버리 예산 ‘1171억’ 용처 논란

조직위 인건·운영비 84억 '과도 편성' 비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세계 잼버리) 준비 명목으로 무더기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야영장 조성에 적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7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조직위 출범 이후 잼버리 대회 사업비로 총 117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조직위가 870억원, 전라북도가 265억원, 부안군이 36억원을 각각 썼다.

조직위가 공개한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인건·운영비로 쓰인 예산은 총 8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2%에 그친다. 인건비 55억원, 운영비 29억원이다. 야영장 조성비로는 395억원이 쓰였다. 이 중 265억원은 대집회장 조성과 강제배수시설 설치 등에 배정됐다.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숙영편의시설 설치 및 침수 대비 대책 포장 등에는 130억원이 집행됐다.

또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에 121억원, 과정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3억원,

텐트·매트·취사용품 구입 59억원, 개·폐역식과 문화교류의 날 등 공연 이벤트에 45억원, 회원국 항공비 지원 비용에 45억원 등이 쓰였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직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잼버리 시설비 및 행사 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예산의 사용처가 의심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향후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새만금 잼버리 준비를 위해 그간 투입된 정부·지자체 직접 예산은 1000억원 이상으로 가히 천문학적 액수”라며 “그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런 엄청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최상급의 인프라를 갖춰야 마땅했고 역대 최고의 잼버리라는 안팎의 호평을 받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증발했나.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공공 횡령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